

#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 방법에 관한 연구

공 미 선\* · 채 금 석\*\*

동명정보대학교 정보대학원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Expansion Methodology of Creative Fashion Design

Mi-Sun Kong\* · Keum-Seok Chae\*\*

Instructor, Graduate School, Dongmyung Informati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4. 8. 2 투고)

### ABSTRACT

The creative fashion design is the technique which can be obtained through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nciple, element-combination and idea-expression.

In the research, as the results of theoretical survey of design structure and idea-expression, the structural and subjective designs are classified and defined: a. the structural design is analyzed with the existing examples based on the combinational idea-expression of the O.C.L method, and b. the subjective design is also analyzed connecting the real examples to Gordon method, Synetic method, Association method, and expansive idea-expression-method obtained by the Experiences of Geometrical Combinations.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reative fashion design which emphasizes the geometrical structure utilizes the modification method which combines the shapes and constructs extraordinary structural beauty coming from the complex structural principle, that is, emphasis and balance.
2. The creative fashion design which emphasizes specific subjects utilizes the modification method which mimics representative and plastic resemblances and constructs symbolic structural beauty coming from the simple structural principle, that is, material elements.

Key words: creative fashion design(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 analysis of structure(구조분석), principle(원리), element(요소), idea expression method(발상법), relationship(관련성)

### I. 서론

패션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느낌과 생각을 패션 디자인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하나의 미적 구조의 새로운 질서를 표출시키는 창조적인(creative) 사고

의 결과물이다. 패션 디자인의 창조적인 사고 자체는 그 영역이나 의미가 광범위하고 불분명하여 비논리적인 인지심리학적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창조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형태를 구성하는 조형의 기술은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창조적인 사고의 결

과물인 패션 디자인은 하나의 형태 조형물로 개념화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패션 디자인에 있어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는 단 하나라는 독특함, 유일함으로 설명될 수 있으나 그것은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고 기존요소를 분해, 조립하여 또 다르게 전환하여 재구성, 재배치된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인의 요소, 원리, 보다 다양한 발상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입을 수 있는 옷의 개념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형태나 형태를 표현하는 아이디어가 일상적이기 보다 시각적으로 새롭고 비약적이면서 개인의 독창성(originality)이 강조되어 표현되는 패션 조형 결과물을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이라 규정하고 창조성, 크리에이티비티는 그러한 패션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 수단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흔히 패션 디자인 요소, 원리의 구성요소를 나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패션 디자인 하는 것, 패션 디자인 방법, 패션 디자인의 특성으로 이해하거나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와 패션 디자인 전개 방법이 혼돈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양한 표현의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 방법은 형태 구성에서 디자인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형태를 구축하는 각 구조와 구체적인 발상방법의 적용을 이해한 형태구조의 해체 혼련을 통하여 보다 용이하게 습득될 수 있다. Barnes<sup>1)</sup>는 형태가 모든 조형적인 수단의 융합이나 종합이며 그들의 조화로운 합병이라 하였고 한 사물의 형태는 그 구조적 단위로 부터 나오며 이 단위가 결합되고 조립되는 방식은 형태의 본질로 그 생명력을 결정한다고 하였듯이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형태는 각 요소 단위들의 유기적 총합으로 창조적인 표현이 이루어진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인의 기존 요소가 재구성, 재배치되어 보다 새롭고 비약적이며 독창적인 형태 조형 결과물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을 개념화하여 규정하고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형태론에 근거한 디자인 요소, 원리, 발상법의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파악과 구조를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실제 사례 분석으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형태 조형을 구성하는 방법 및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범주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의 개념은 처음 만드는 것, 만들어 내는 것의 의미로써 예술, 과학, 기술,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변혁시키는 정도나 형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E. K Von Fange<sup>2)</sup>는 크리에이티비티는 새로운 결합이며 기존의 요소를 새롭게 결합하는 지속적인 분리와 합치의 문제라 하였는데 그것은 의식, 의도되어지고 통제된 재조립의 의미로 일상적인 적용이 아니고 기존 요소를 분해, 조립, 전환하여 새롭게 재구성, 재배치하는 질적 규정의 비약이 보이는 것으로 공상, 상상, 환상과 달리 특정목적은 만족시키는 보편성, 타당성, 안정성이 요구되며 독창적이면서 더 나은(better) 향상성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크리에이티비티는 William JJ Gorden<sup>3)</sup>, Buckster Fuller<sup>4)</sup>, Laxton, M.<sup>5)</sup>, Kneller, G.F.<sup>6)</sup> 등에 의해서도 논해졌는데 비슷한 의미인 창의성은 새로움과 적절함을 위한 그 동기, 태도, 기법을 포함하며 창의력은 창의적 의지까지의 과정성을 강조하는 능력에 국한된 개념이고 독창성은 유일함이 강조된 것이다. 반면 크리에이티비티는 재배치, 재구성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독창성과 이에 따른 비약적인 표현력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된 결과성이 강조된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은 새로움을 창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크리에이티비티의 의미는 패션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통합, 계획, 조직한다는 기본적인 디자인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패션 디자인 전개 방법에 관련된 발상으로 반영되어 크리에이티브 패션의 디자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패션 디자인에 적용된 크리에이티비티를 살펴보면 입을 수 있는 목적이나 용도의 의미가 강한 기성복 패션 디자인, 입을 수 있는 목적의 옷과 예술적 표현이 심화된 오픈꾸뛰르, 입을 수 있는 의미보다 디자이너의 심상이나 공예적 테크닉이 강조되거나 표현되는 예술의상(Art to Wear), 입을 수 있는 의상의 목적이나 용도보다 일정 디자인 컨셉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진대회 패션 디자인, 이 모든 영역에서 패션 디자인 기존 요소의 인위적인 재조립, 재

배치는 활용될 수 있으며 또 극히 간략하게 절제된 라인의 패션 디자인에도 고도의 감수성이 표현된 크리에이티브티가 표현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은 입을 수 있는 옷의 개념을 가지고 형태를 구성하는 색채, 소재, 문양에서, 또 형태를 표현하는 아이디어에서 기존 패션 디자인 구성요소의 나열적인 구성, 배치가 아닌 재구성, 재배치의 더욱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발상법이 부가되어 일상적이기 보다 새롭고 비약적이면서 독창적인 표현의 패션 조형 결과물로서 규정한다.

이와같은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은 특히 실험적인 프레타 포르테 디자인이나 독창성이 강조된 오픈썬드 패션 디자인에서 각 디자이너의 일정 스타일로 찾아 볼 수 있다. Rudolph Arnheim<sup>7)</sup>은 예술작품의 주제 규정은 존재이유를 선별하는 힘의 패턴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였다. 또한 어떤 디자인 요소나 원리의 사용도 관계하는 외관상의 무게가 있으며 그것은 좀더 편중된 에너지의 무게로써 시각적 강조점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였듯이 디자인에 있어 새롭고 비약적이면서 독특한 형태의 옷이나 그 형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강조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은 다른 개념의 패션 디자인과 구분될 수 있다.

## 2.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구축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구조 분석은 형태가 구축된 체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구축이란<sup>8)</sup> 구조의 완성된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떤 물건이나 조직체 따위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의 서로 짜인 관계와 체계를 의미한다.

흔히 디자인 구성물은 표면효과를 창출하는 디자인 요소와 골조라 할 수 있는 디자인 원리의 구조로 구성<sup>9)</sup>되는데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도 형태, 색채, 소재, 문양 등의 디자인 요소와 리듬, 강조, 균형, 조화, 통일 등의 원리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그 구조가 이루어 진다 하겠다. 그리고 구성된 요소에 반복, 평행, 연속, 교차, 점진, 방사, 율동, 리듬 등의 가장 단순한 방향의 원리나 대비, 집중 등의 강조의 원리 혹은 균형, 비례, 규모, 통일, 조화 등의 보다 복잡한 통합의 원리가 복합되어 미적 질서<sup>10)</sup>를 구현하고 또 무엇보다 여러 가지 발상법이 부가, 활용되어 새롭고 비약적이면서 독특하게, 창조적으로 구축된다.

Lawson<sup>11)</sup>은 디자인 문제는 좀더 다차원적이고

고도로 상관적이라고 하였는데 디자인은 디자인 구조와 디자인 구조가 관련되어 연속적인 피드백 구성 및 필요성으로 진행되는 순환적이며 총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복합적으로 구축된 패션 디자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당연히 그 완성물을 논리적으로 해체,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결합 안에서 디자인의 부분들을 인식해 낸다는 것은 이들이 가진 관련성을 지각하고 이와같은 기초 위에서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완성된, 구축된 디자인에 있어 디자인 형태의 표현 테마 발견은 90% 해당<sup>12)</sup>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발견을 조형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형 자체와 조형 형태의 테마발견<sup>13)</sup>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특정 형태나 그 형태를 표현하는 아이디어가 새롭고 비약적이면서 독특하게 강조되어 구축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테마 발견은 어떤 형태를 이루는 테마인가의 문제로서 패션 디자이너의 의도가 옷의 형태 구조를 강조한 패션 디자인인가 아니면 표현하고자 하는 일정 테마, 즉 주제를 형태화한 디자인인가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을 구성, 구축하는 각각의 특징적인 구성 요소와 발상법은 분류될 수 있다. 물론 현대패션의 포스트 모던(Post Modern)한 패션 경향에서 이 두가지 모두 활용하는 감각적인 패션 디자이너들도 소수 있으나 대부분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이너들은 옷의 형태 구조나 특정 주제를 강조, 표현한다. 이들은 현대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포스트 모던한 현상인 플라주, 인용, 겹치기, 붕괴의 강조를 통해서 해체, 과장, 확대, 축소, 과도함, 불연속 등의 기법으로<sup>14)</sup> 패션에서 의외성, 전위성, 환상성, 가공성, 집중성, 해체성, 상징성 등의 다양한 현대패션의 조형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 3.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와 발상법

William JJ Gorden<sup>15)</sup>은 디자인 프로세스는 일련의 적절한 단계들이며 디자인 방법은 그러한 단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기술이라 정의하였듯이 디자인 전개는 디자인 패러다임의 구조아래서 여러 종류의 도구(design tool)들로 구성되며 디자인 방법은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하겠다.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는 디자이너 개인성에 따른 무작위의 정보와 자극이 취합되어 전

개되고 창조공학과 체계화된 사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결합력있는 구조로 변경시키는 전개방법으로 창출된다. 이와같은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 과정과 전개방법에는 창조적이고 비약적인 사고의 발상이 필요한데 사고는 Ryle<sup>16)</sup>, Barlet<sup>17)</sup>, Edward de Bono<sup>18)</sup>에 의해 기술의 숙련 문제로 간주된 바 있으며 프로세스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개인적인 의 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는 사고와 체계적인 사고나 창조공학의 기술에 관련된 구체적이고 지시적인 사고 방법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발상 사고의 개념은 분명한 영역 구분이 아니고 상호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형태전개에 활용된다 하겠다.

사고와 사고방법의 기술에 관한 발상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awama Testu<sup>19)</sup>는 디자인 프로세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드백(feed back)될 수 있는 순환적 해결안이라 하였는데 디자인 프로세스는 문제의 인식, 설계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래밍, 아이디어 자료수집, 문제분석, 종합화, 전개, 설계의 결정, 결과의 통합, 검토, 평가, 전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개과정에는 발산, 수렴<sup>20)</sup>의 사고 과정, 블랙 박스(black box) 발상, 글래스 박스(glass box)<sup>21)</sup> 발상, 아이디어 산출 생성법<sup>22)</sup>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발산, 수렴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에서의 사고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 발상과 글래스 발상은 아이디어 전개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사고종류라 할 수 있다. 또 아이디어 산출법은 아이디어 산출틀을 형성하지 않는 법, 기존 아이디어 산출틀을 활용하는 법,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틀을 형성하여 활용하는 근본적인 사고 형성 방법으로 이들은 현상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사고로서 모형개발을 필수로 하는 인지심리학적 영역에 접하는 발상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디자인 전개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사고 방법에 관한 발상법은 구체적인 사고 기술에 관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과학, 사회, 예술 전반에 활용되며 경험주도형기법, 분석기법, System법, 사고주도형 기법, 유이성 기법, 이미지주도형 기법 등<sup>23)</sup>을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과거 경험의 대상에서 적응되어 평가기준을 설치할 수 있는 경험주도형 발상법은 경험적 도형결합법, 특성열거법, 희망적 열거법, 직관적 발상양케이트법, 리스트법, GM 사법, 결점열거법, 문제점 열거법 등이 있다. 대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체계화, 재배열한 신가설 발상법인 분석 기법은 형태분석법, KJ법, 시스템법, 매트

릭스법, GE사법, 5WH법, 계단식사고법, 발명의 개발기법, 상대적 대비법, O.C.U(Original Common Useful)법 등이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 각 요소의 최적적인 조합을 구성하는 시스템법은 시스템 합성법, 초점법, 카다로그법, 분석법, MIT법 고든법, FAME법, SET법, 신문지법, 변환유추법, 레일형사고법, 발명, 발견지향기법 등이 있다. 자연계나 사물을 테마에 관련된 유이를 행하고 내용을 변형시키는 유이성 기법은 시네틱스, 증가변환론, 미래예측법, 사체형가공모델법, 원환사고의 기법, 아이디어형성에 관한 Catastrophe법, 가설설정법, 특허방법, 삼각모형법 등이 있다. 명상, 공상속에서 이미지를 포착하여 그 힌트를 얻는 이미지주도형 기법은 연상의 기법, 최면발상법, MN-H형기법, 입출력법, 특성열거법, BS(Brain Storming)법, R.B.S(Reverse Brain Storming)법, O.C.L(Osborn Check List)법, 특성요인도법, 파레트법, 꿈의 과학, 시네틱피법이 있다.

이 다양한 발상법 중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고 방법의 기술은 창조적 사고와 수작업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상기법과 창조적 사고의 확장을 꾀하는 사고 확장 발상법, 그러한 사고를 재조직하여 사고를 체계화시키는 사고 체계화 발상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분류 중 사고 확장 발상법은 사고를 자유롭게 순수 확장시키는 발상법과 사고나 사물을 조합하여 사고를 확장하는 발상법, 시스템적으로 결합하는 발상법 등 3가지로 재구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의 순수확장과 시스템적 결합 발상법 그리고 사고를 재조직하여 사고를 체계화하는 발상법은 개개인의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심리학 영역이 강화되는 부분으로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 전개 방법의 기술적 발상 방법은 발상기법과 조합사고확장 발상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위와같은 분류에 의하면 발상기법은 사물, 아이디어를 리스트화하여 결부시키는 리스트법<sup>24)</sup>, 속성의 구조를 결합, 분석하는 형태분석법<sup>25)</sup>, 각 아이디어 요소를 체크 포인트하여 조합, 부가, 변형, 결합 등의 기법으로 상호연결된 해결점을 찾는 O.C.L법<sup>26)</sup>이 있으며 이 발상법에는 형태를 재구성, 재배치하여 변형, 조합하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다.

반면 조합사고확장 발상법은 무리한 요소를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카다로그법, 공통된 특성을

추상화하여 결합하는 고든법, 발상전환을 추상어로 제시하는 SET법, 유사점, 관련성을 추출하여 직접적 유추, 상징적 유추로 조합하는 시네틱스법, 사물을 의인화하여 직접적 연상, 상징적으로 연상하는 연상의 기법, 사물을 모방, 단순하게 결합하는 분석 결합의 경험적 도형 결합법으로 특정 주제를 모방, 재현하기 위한 사고를 확장, 조합하는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위 두 발상법은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한 형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 복합적으로 활용되며 보다 강화된 발상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 Ⅲ.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 방법

#### 1. 형태 분류와 구조

형태는<sup>27)</sup> 형 특히 시각, 촉각 등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적 성질로써 예컨대 물체의 모습, 생김새, 용모, 꼴, 형상 등의 내용이나 그 기능에 대응되는 외형과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태는 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적, 현상적인 성질이며 또 형태는 그 구성물질로 구분되는 사물의 형상이나 전체적인 외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형의 특성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조형의 과학적 연구로서 그에 따른 세분화된 형태분류는 디자인 전개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

디자인의 형태 발견은 형 자체와 조형 테마로 발견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

인의 형태 발견은 어떤 형태의 테마인가의 문제로써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옷의 형태구조를 강조한 디자인과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를 형태로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옷의 형태구조를 강조한 디자인(그림 1)<sup>28)</sup>은 반복적인 주름의 리듬감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며 <그림 2><sup>29)</sup>는 나비 형태를 모방하여 디자이너가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를 표현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요인이 다 복합되어 표현되는 디자인도 있는데 <그림 3><sup>30)</sup>은 옷의 형태 구조와 삐에로(Pierrot)라는 특정 주제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상부형태의 강조와 삐에로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복합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 2. 형태 전개와 발상법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형태전개는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형태나 아이디어로 형태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그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에 여러 가지 발상기법과 조합사고확장 발상법이 적용되어 분해, 조립, 전환으로 형태를 확정하며 다시 재구성, 재배치하여 일상적인 표현이 아닌 새롭고 비약적이며 독특한 형이 전개되는 것이다. 물론 형태 구성, 확정, 전개에 관계된 다양한 발상법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일렬적 적용이 아니고 개인의 디자인 취향과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호 보완되어 피드백 될 수 있는 발상으로 활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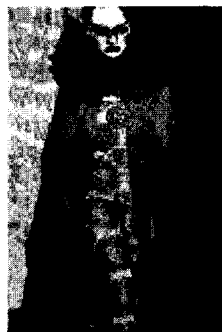
위의 발상법이 적용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예를 살펴보면 <그림 4><sup>31)</sup>는 게더(gather)의 트리밍을 옷의 구성선에 리듬을 준 형태분석법이 활용되었고 <그림 5><sup>32)</sup>는 O.C.L법 중 결합법이 활용



<그림 1> 형태구조를 강조한 디자인



<그림 2> 특정주제를 강조한 디자인



<그림 3> 복합 디자인



<그림 4> 형태분석법의 디자인



<그림 5> 형태결합법의 디자인

된 것으로 커다란 백(bag)같은 주머니를 옷의 한 부분으로 강조, 결합하여 조합의 의미로 디자인을 전개, 마무리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입을 수 있는 옷의 형태 구성에 충실하면서 디자인의 기술적인 조합의 발상법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림 6><sup>33)</sup>은 곤충의 특징을 간략화하여 옷의 형태에 입체적으로 표현한 경우이며 <그림 7><sup>34)</sup>은 곤충의 특징을 반입체의 형태로 나타냈으며 <그림 8><sup>35)</sup>은 옷의 구성선에 곤충의 특징이 약화되어 평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9><sup>36)</sup>는 새의 형상이 재현적으로 그대로 옷의 형태에 평면적으로 모방되었고 <그림 10><sup>37)</sup>은 앞의 부분들이 옷의 평면적인 형태인 칼라 부분에 일부 모방된 경우이며 <그림 11><sup>38)</sup>은 꽃의 이미지가 평면적인 옷의 여러 부분에 조합, 모방되어 표현되었다. <그림 12><sup>39)</sup>는 새의 형태가

입체적으로 그대로 표현되었으며 <그림 13><sup>40)</sup>은 새의 속성 일부인 날개가 입체적으로 재현되어 모방, 표현되었고 <그림 14><sup>41)</sup>는 새의 형태에서 날개, 깃털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재현적으로 추출, 조합되어 입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들에서 특정 주제의 모방, 재현을 위해 조합사고 확장 발상법이 형태 전개에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옷의 형태구조가 강조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는 형태를 변형, 조합하는 발상법이 활용되어 옷 자체의 형태가 강화되는 것으로 먼저 구상된 복식 아이템을 위한 디테일이나 트리밍을 결부시키는 리스트법으로 구성하고 복식의 구조가 될 수 있는 재단법, 복식의 면분할, 구성법 등으로 모방, 단순, 분석, 결합하는 형태분석법은 부분변형으로 형을 확정하는 것이며 기존 패션 디자인 요소와 원리



<그림 6>  
사고확장법  
(추상적 입체)



<그림 7>  
사고확장법  
(추상 반입체)



<그림 8> 사고확장법  
(추상 평면)



<그림 9> 사고확장법  
(재현평면유사모방)



<그림 10> 사고확장법  
(재현평면속성일부모방)



<그림 11> 사고확장법  
(재현평면조합모방)



<그림 12> 사고확장법  
(재현입체유사모방)



<그림 13> 사고확장법  
(재현입체속성일부  
모방)



<그림 14>  
사고확장법  
(재현입체조합  
모방)

의 재구성, 재배치의 문제해결 요소를 전환, 극한, 반대, 결합, 부가, 변경하는 O.C.L법으로 형을 총합적으로 재구성, 재배치하는 디자인 기법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주제를 강조하는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은 특정 테마의 모방, 재현을 위해 여러 가지 표현을 조합하는 발상법을 활용하며 카다로그법으로 구상된 주제의 형태를 구성하고 고든법, SET법, 시네틱스법, 연상법을 활용하여 추상적, 재현적으로, 또 입체, 반입체, 평면이나 경험적 도형결합법으로 특정 주제의 특성을 유사모방, 속성일부 모방, 속성 조합 모방하여 형태를 확정, 총합적으로 재구성, 재배치하는 여러 가지 조합사고 확장 발상법이 활용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옷의 형태 구조가 강조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있어 재구성, 재배치의 보다 총합적인 발상법은 O.C.L인 발상기법이라 볼 수 있으며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재구성, 재배치의 보다 총합적인 발상법은 여러 가지 조합사고확장 발상법이라 할 수 있다.

#### IV.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 방법에 따른 사례분석

##### 1.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패션 전문 사이트인 <http://firstview.com>과 <http://www.style.com>, 패션전문 잡지인 Collezioni, Book Moda의 2002 S/S, 2002 F/W, 2003 S/S 3 시즌에서 본 연구자 외 패션전문 교수 3인, 패션 디자이너 1인이 새롭고 비약적인 독특한 조형성을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이너 13인 (Alexander McQueen, Christian Lacroix, Comme des garçons, Issey Miyake, Gian Franco ferré, John Galliano, Jean Paul Gaultier, John Galliano, Martin Margiela, Sarli, Thierry Mugler, Vivienne Westwood, Yohji Yamamoto)의 컬렉션에서 패션 디자인 사진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1차로 분석자료 1000점을 뽑은 다음 5인 모두가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이너라 선정한 총 593점에서 디자인 구조에 의한 형태분류, 그 형태분류에 따른 발상법의 특성, 발상법에 따른 디자인 구조와의 관련성, 조형미의 특성을 분석하여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형태 조형 전개방법을 사례분석하였다.

## 2. 분석결과 및 논의

### 1) 디자인 구조에 의한 형태 분류

형태 구조를 강조한 패션 디자인과 특정 주제를 강조하는 패션 디자인을 어느 한쪽으로 분리할 수 없지만 강조점이 표현되어 그 표현의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형태 구조를 강조한 디자인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디자인 구조에 의한 형태 분류

	형태 구조	특정 주제	계(%)
Alexander McQueen	35 (85.37)	6 (14.63)	41 (100)
Christian Lacroix	3 (9.09)	30 (90.91)	33 (100)
Comme des Garçons	36 (100.00)		36 (100)
Issey Miyake	12 (41.38)	17 (58.62)	29 (100)
Gian Franco Ferré	26 (92.86)	2 (7.14)	28 (100)
Jean Paul Gaultier	85 (85.00)	15 (15.00)	100 (100)
John Galliano	17 (20.99)	64 (79.01)	81 (100)
Julien Macdonald	25 (48.08)	27 (51.92)	52 (100)
Martin Margiela	19 (100.00)		19 (100)
Sarli	27 (100.00)		27 (100)
Thierry Mugler	23 (63.89)	13 (36.11)	36 (100)
Vivienne Westwood	56 (91.80)	5 (8.20)	61 (100)
Yohji Yamamoto	50 (100.00)		50 (100)

### 2) 형태 분류에 따른 발상법

#### (1)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과 발상법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변경법, 부가법, 결합법, 전환법, 극한법, 반대법 순의 발상법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표 2>

#### (2)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과 발상법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표 2> 형태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과 발상법

디자이너 \ 발상법	전환법	극한법	반대법	결합법	부가법	변경법	계(%)
Alexander McQueen	7 (17.07)	5 (12.20)	1 (2.44)	7 (17.07)	10 (24.39)	11 (26.83)	41 (100)
Comme des Garçons					17 (47.22)	19 (52.78)	36 (100)
Gian Franco Ferré		5 (17.86)		3 (10.71)	1 (3.57)	19 (67.86)	28 (100)
Jean Paul Gaultier		4 (4.00)	2 (2.00)	30 (30.00)	14 (14.00)	50 (50.00)	100 (100)
Martin Margiela	2 (10.53)			11 (57.89)	2 (10.53)	4 (21.05)	19 (100)
Sarli	4 (14.82)	1 (3.70)		8 (29.63)	1 (3.70)	13 (48.15)	27 (100)
Thierry Mugler	3 (8.33)			4 (11.11)	11 (30.56)	18 (50.00)	36 (100)
Vivienne Westwood	1 (1.64)	5 (8.20)		12 (19.67)	23 (37.70)	20 (32.79)	61 (100)
Yohji Yamamoto			1 (2.00)		15 (30.00)	34 (68.00)	50 (100)

보다 복합된 재구성, 재배치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재현적인 표현이 많으며 추상적인 표현은 입체보다 평면으로, 재현적인 표현은 입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입체적인 표현은 유사모방, 평면적인 표현은 속성일부 모방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은 주로 사물의 특성을 유사, 모방한 재현적인 표현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표 3>

a.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디자인 요소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재구성, 재배치의 총합적 발상법으로 활용된 O.C.L법 중 하나인 변경법을 비롯하여 모든 발상법에서 디자인 요소인 형태를 활용하여 디자인이 구축됨을 알 수 있다.<표 4>

<표 3> 특정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과 발상법

디자이너 \ 발상법	추 상			재 현						계 (%)	
	입 체	반입체	평 면	입 체			평 면				
				속성 일부 모방	유사 모방	조합	속성 일부 모방	유사 모방	조합		
Christian Lacroix			23 (76.67)	7 (23.33)							30 (100)
Issey Miyake		5 (29.41)			2 (11.76)			10 (58.83)			17 (100)
John Galliano		26 (40.63)			38 (59.37)						64 (100)
Julien Macdonald			9 (33.33)		18 (66.67)						27 (100)

3) 각 발상법과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 구조와의 관련성

(1) 발상법과 디자인 요소

b.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디자인 요소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표 4>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디자인 요소

발상법 \ 디자인요소	형태	색채	소재	문양	계(%)
전환법	13(50.00)	2(7.69)	11(42.31)		26(100)
극한법	38(100.00)				38(100)
반대법	4(80.00)		1(20.00)		5(100)
결합법	64(85.33)		11(14.67)		75(100)
부가법	147(68.37)	8(3.72)	60(27.91)		215(100)
변경법	187(79.92)	2(0.85)	45(19.23)		234(100)

<표 5> 특정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디자인요소

발상법 \ 디자인요소		형태	색채	소재	문양	계(%)	
추상	입체(A)						
	반입체(B)	10 (32.26)		21 (67.74)		31 (100)	
	평면(C)	8 (25.00)		24 (75.00)		32 (100)	
재현	입체	속성일부모방(D)		7 (100.00)		7 (100)	
		유사모방(E)	22 (37.93)		36 (62.07)		58 (100)
		속성 조합(F)					
	평면	속성일부모방(G)	10 (100.00)				10 (100)
		유사 모방(H)					
		속성 조합(I)					

<표 6>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디자인 원리

발상법 \ 디자인원리	리듬	강조	균형	부조화의조화	불균형의균형	계(%)
전환법	10 (38.46)	10 (38.46)	3 (11.54)		3 (11.54)	26 (100)
극한법		24 (63.16)		11 (28.95)	3 (7.89)	38 (100)
반대법		2 (40.00)	3 (60.00)			5 (100)
결합법	10 (13.33)	20 (26.67)	23 (30.67)	10 (13.33)	12 (16.00)	75 (100)
부가법	101 (46.98)	25 (11.63)	19 (8.84)	30 (13.95)	40 (18.60)	215 (100)
변경법	46 (19.66)	42 (17.95)	48 (20.51)	17 (7.26)	81 (34.62)	234 (100)

발상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된 발상법인 재현적인 표현의 유사모방과 또 추상적인 표현의 평면이나 반

입체에서 소재를 이용하여 디자인이 구축됨을 알 수 있다.<표 5>

〈표 7〉 특정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디자인 원리

발상법		디자인원리	리듬	강조	균형	부조화의 조화	불균형의 균형	계 (%)
추상	입 체(A)							
	반입체(B)		19 (61.29)		10 (32.26)		2 (6.45)	31 (100)
	평 면(C)		17 (53.12)		4 (12.50)		11 (34.38)	32 (100)
재현	입체	속성일부모방(D)	7 (100.00)					7 (100)
		유사모방(E)	45 (77.59)	9 (15.52)		4 (6.89)	58 (100)	
		조 합(F)						
	평면	속성일부모방(G)			8 (80.00)		2 (20.00)	10 (100)
		유사모방(H)						
		조 합(I)						

〈표 8〉 형태구조가 강조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조형미

발상법	조형미							
	의외성	전위성	환상성	가공성	집중성	해체성	상징성	계(%)
전환법	16 (61.54)			5 (19.23)	3 (11.54)		2 (7.69)	26 (100)
극한법	5 (13.16)			11 (28.95)	8 (21.05)		14 (36.84)	38 (100)
반대법	2 (40.00)				1 (20.00)	2 (40.00)		5 (100)
결합법	33 (44.00)	5 (6.67)		7 (9.33)	5 (6.67)	9 (12.00)	16 (21.33)	75 (100)
부가법	114 (53.02)	7 (3.26)	5 (2.33)	13 (6.05)	8 (3.72)	32 (14.88)	36 (16.74)	215 (100)
변경법	160 (68.38)	15 (6.41)		28 (11.96)	11 (4.70)	16 (6.84)	4 (1.71)	234 (100)

(2) 발상법과 디자인 원리

a.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디자인 원리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재구성, 재배치의 총합적 발상법으로 활용된 O.C.L법 중 변경법에서 불균형의 균형이, 전체 발상법에서 강조, 균형, 리듬, 불균형의 균형, 부조화의 조화 순의 디자인 원리가 활용됨을 알 수 있다.〈표 6〉

b.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디자인 원리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발상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재현적인 표현의 입체 유사모방과 추상적인 표현의 반입체, 평면의 표현에서도 리듬이 가장 많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표 7〉

4) 각 발상법에 표현된 조형미의 특성

(1) 형태 구조가 강조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조형미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재구성, 재배치의 총합적 발상법으로 활용된 O.C.L법 중 변경법과 전체 발상법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의외성의 조형미가 표현되었으며 의외성, 가공성, 해체성, 상징성, 집중성, 전위성, 환상성 순으로

표현되었다.<표 8>

이와같은 사례분석의 내용은 <표 10>으로 정리 될 수 있다.

(2)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조형미

V. 결론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발상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입체 유사모방과 전체 발상법에서 상징성이 지배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9>

모든 디자인 방법의 완전한 유추에는 의사결정의 연속관계나 디자인 프로세스, 형태론 모두가 연구<sup>42)</sup> 되어야 하지만 디자인을 전개하는 한 개인의 의사

<표 9> 특정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발상법과 조형미

발상법		조형미	의외성	전위성	환상성	가공성	강조성	해체성	상징성	계(%)	
추상	입체(A)										
	반입체(B)	10 (32.26)				2 (6.45)			19 (61.29)	31 (100)	
	평면(C)	13 (40.62)				3 (9.38)		10 (31.25)	6 (18.75)	32 (100)	
재현	입체	속성일부 모방(D)							7 (100)	7 (100)	
		유사 모방(E)	2 (3.45)		16 (27.58)	10 (17.24)		2 (3.45)	28 (48.28)	58 (100)	
		속성 조합(F)									
	평면	속성일부 모방(G)					10 (100)				10 (100)
		유사 모방(H)									
		속성 조합(I)									

<표 10>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구조분석과 조형미

발상법		조형성	디자인요소	디자인원리	조형미
전환법			형태	리듬·강조	의외성
극한법			형태	강조	상징성
반대법			형태	균형	의외성·해체성
결합법(M.M)			형태		의외성
부가법(V.W)			형태	리듬	의외성
변경법(A.M, C.G, G.F, J.P.G, Sl. T.M, Y.Y)			형태	불균형의균형	의외성
추상	입체				
	반입체		소재	리듬	상징성
	평면(C.L)		소재	리듬	의외성
재현	입체	속성일부모방	소재	리듬	상징성
		유사모방(J.G, J.M)	소재	리듬	상징성
		속성조합			
	평면	속성일부모방(I.M)	형태	균형	가공성
		유사모방			
	속성조합				

결정 연속관계나 프로세스는 인간 개개인의 뇌에 관계된 인지심리학 영역이므로 확립적으로 검증, 규명하기 쉽지 않으며 실제 활용되기 어려운 이론적 연구에 그치기 쉽다. 반면 형태조형을 구성하는 형태론은 조형의 발견적 연구로써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형태 조형 요소, 원리, 창의적 발상법의 유기적 관련으로 구축된 구조분석으로 근본적인 형을 발견하게 하여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실제적인 전개 방법의 습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광범위하고 불투명한 패션 디자인의 창조적 표현에서 디자인 전개 방법을 살펴보기 위하여 형태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새롭고 비약적이며 독특한 패션 디자인을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그 구성요소, 원리, 발상법에 관한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옷의 형태구조가 강조된 디자인과 특정 주제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형태를 분류하고 형태 구조가 강조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보다 변형적인 디자인 기술에 관한 총합적인 조합 발상법인 O.C.L 법과 특정 주제를 강조하는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전개 방법에 주제의 모방, 재현 등의 사고확장의 총합적 발상법으로 활용된 고든법, SET법, 시네틱스법, 연상법, 경험적 도형결합법의 발상법 등의 조합사고확장 발상법으로 정리, 구분하여 각 구성 요소와 연관지어 실제적으로 사례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특정 주제를 표현한 것 보다 옷의 형태 구조가 강조된 디자인이 지배적이었다.

둘째, 옷의 형태 구조가 강조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재구성, 재배치의 총합적인 조합 발상법은 변경법, 부가법, 결합법, 전환법, 극한법, 반대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정 주제가 강조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는 사고확장을 위한 조합 발상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상적인 표현보다 재현적 표현이 많았으며 추상입체, 유사모방으로 사고를 모방, 확장하는 발상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옷의 형태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은 형태를 재구성, 재배치하여 변형하는 변경법에서 형태의 불균형의 균형, 강조의 원리가 주로 이용되었으며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은 사고를 확장, 조합하는 재현적인 입체의 유사 모방에 소재를 활용한 리듬감이 주로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옷의 형태 구조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

션 디자인 중 가장 많이 활용된 변경법에서 의외적 조형미가 표현되었고 특정 주제를 강조하는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서 가장 많은 재현적인 입체의 유사모방 발상법에는 상징적인 조형미가 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형태를 강조하는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은 형태 변형을 피하는 디자인 기술적 발상법과 보다 복잡한 조형원리가 활용되며 재구성, 재배치의 형태를 새롭게 변형하여 의외적인 표현을 가능케 하는 조합 발상법이 활용된다. 반면 특정 주제를 강조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에서는 형태보다 소재를 활용하여 사고의 확장을 피하는 조합사고확장 발상법이 활용되며 주제의 모방, 재현을 통한 형태의 재구성, 재배치로 상징적인 표현을 가능케 하는 조합 발상법이 활용됨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구조과약을 위해 형태구성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정의가 다소 주관적이 될 수 있으나 대단히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표현의 패션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분류보다 패션 디자인을 하나의 일정 조형 형태물로 개념화 해야 했음을 밝힌다. 현재까지 패션 디자인의 구조해체를 시도하거나 디자인 구성 요소와 광범위한 발상법을 연결, 분류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패션 디자인 구조분석에서 관련된 공통점을 찾아 최대의 표준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은 체계화되지 않은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형태구성방법을 전개하는 기술적인 기초이론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광범위한 연도, 지역, 디자이너를 선정하여 자료 분석한다면 좀 더 세분화된 분류의 결과도 도출되리라 보며 또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 전개의 기술적 방법뿐 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패션 디자인의 의사결정 연속관계나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최길렬 (1998). 디자인 발상 노트. 디자인 신문사, p. 14.
- 2) Eugene K. Von Fange (1959). *Professional creativity*. Prentice-Hall, Inc Engle Wood Cliffs.
- 3) 박화술 (1980). 창조공학원론. 학문사, p. 128.
- 4) 니콜라스 룩스, 김미지자 (1998). 창조적 디자인 감각 키우기. 혜음, p. 11.
- 5) Bryan Lawson. 윤장섭역 (1998). 디자이너의 사고방

- 법. 기문당. pp. 140-41.
- 6) 위의책.
  - 7) 니콜라스 룩스, 김미지자. 앞의 책, p. 177.
  - 8)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p. 1071.
  - 9) 우홍룡 (1996). 디자인 사고와 방법, 장미, pp. 176-77.
  - 10) Marian L Davis,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1990). 복식의 시각 디자인. 경춘사, pp. 38-39.
  - 11) Bryan Lawson (1980). *How Designers Think*. London: The Architectural Press, p. 43.
  - 12) Bryan Lawson. 앞의 책, p. 199.
  - 13) 辻弘 杉山明博, 김인권역 (1986). 조형형태론. 미진사, p. 198.
  - 14) D. Harvey (1988). *The passage from modernity to postmodernit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Basil Blackwell, pp. 60-61.
  - 15) 辻弘 杉山明博, 김인권역. 앞의 책, p. 131.
  - 16) Bryan Lawson. 윤장섭역. 앞의 책, p. 18.
  - 17) 위의 책.
  - 18) 위의 책, p. 11.
  - 19) 우홍룡 (1996). 앞의 책, p. 82.
  - 20) 민경우 (1997).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p. 73.
  - 21) 우홍룡. 앞의 책, p. 98.
  - 22) 박화술. 앞의 책, pp. 124-25.
  - 23) 박화술 (1980). 창조성 개발기법. 학문사, pp. 91-291.
  - 24) 위의 책, pp. 100-01.
  - 25) 위의 책, pp. 107-08.
  - 26) 위의 책, pp. 277-80.
  - 27) 김춘일, 박남희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p. 23.
  - 28) Jesus da pozo. '96 S/S. collezioni.
  - 29) Roberto Capucci. '01 S/S. collezioni.
  - 30) Pierre Balmain. '03 S/S. Book Moda.
  - 31) Serge Lepape. '90-'91 A/W. collezioni.
  - 32) Jean Paul Gaultier. '95-'96 A/W. collection.
  - 33) Thierry Mugler. '97 S/S. collection.
  - 34) Thierry Mugler. '97 S/S. collezioni.
  - 35) Thierry Mugler. '97 S/S. collezioni.
  - 36) Nicolas Le Cauchois. '03 S/S. collection.
  - 37) Chanel. '01 S/S. collection.
  - 38) Egon-Von-Furstenberg. '00 S/S. Book Moda.
  - 39) Thierry Mugler. '97 S/S. collezioni.
  - 40) Alexander Mcqueen. '01 S/S. Book Moda.
  - 41) Thierry Mugler. '97 S/S. collezioni.
  - 42) Bryan Lawson. 윤장섭역. 앞의 책, p. 39.